

룻 이야기

김 태 종 (목사, 충북 청주 샬터교회)

첫째가름

¹힘꾼이¹⁾들이 누리를 다스리던 때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든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시골에 가서 몸붙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²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마흘론과 길론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예브랏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³나오미 지아비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⁴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아나이²⁾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거기서 마흔 해쯤 살다가 ⁵마흘론과 길론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아비를 여윈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⁶그 무렵 야훼가 야훼 무리를 돌보시어 거둠이 넉넉하다는 말이 모압 시골에까지 들렸습니다.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옛살나비³⁾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1) ‘장수’, 또는 ‘영웅’을 우리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2) ‘여자’를 우리말로 옮길 길이 없어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사내’에 맞먹는 말로는 가장 가까운 말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고향’이라는 우리말입니다.

니다. ⁷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던 곳을 떠나 유다로 길을 가다가 ⁸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갈 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내게 그토록 고맙게 해 주었으니 야훼께서도 것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⁹너희 둘 다 새 지아비를 맞아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게 해 주실게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끌어안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¹⁰말했습니다. “안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겨레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¹¹“얘들아,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어찌자고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하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떠밀었습니다. “내 뱃속에 너희 지아비감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¹²얘야, 어서 돌아갈 가거라. 나는 이렇게 늙어 이젠 다시 지아비를 얻을 수도 없다. 내게 무슨 바랄 것이 더 있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내가 지아비를 맞아 아이를 낳는다 치자. ¹³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그걸 바라고 훌뎀으로 어떻게 지내겠느냐? 얘들아, 그건 안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이처럼 야훼께 버림을 받은 몸이구나.” ¹⁴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뜻어머니⁴⁾를 껴안고 떠나겠다고 맘짓을 하고는 제 겨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룿은 뜻어머니 곁을 떠나려 않았습니다.

¹⁵나오미가 다시 타일렀습니다. “보아라, 네 언니는 제 겨레와 제 검⁵⁾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네 언니를 따라 돌아가려드나.” ¹⁶“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하며 룿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거기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거기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겨레가 제 겨레 어머니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¹⁷어머니가 눈 감으시는 곳, 거기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4) ‘장모’ 또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5) ‘신’이라는 우리말입니다.

니다. 죽음 말고는 아무도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¹⁸이토록 끝내 따라가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¹⁹둘은 길을 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서는데 것을 보고 야낙네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하며 떠들썩했습니다.²⁰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오. 하늘 하느님께서 내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주셨구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나 불러 주오.²¹떠날 땐 아쉬운 것 하나 없었으나 야훼께서는 나를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네. 그런데 어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를까? 야훼께서는 내 허물을 들춰 내셨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듯 쓴 맛만 가득 머금게 하셨네.”²²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룯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닿은 것은 보리를 거둘 무렵이었습니다.

둘째가름

¹나오미는 지아버 집안에 푸네기⁶⁾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으로 힘 있는 지님꾼⁷⁾이었는데 이름은 보아즈였습니다.²하루는 모압 아나이 룯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 주세요. 일이 잘 풀려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 뒤를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룯에게 그러라고 하였습니다.³룯이 밭에 나가 거두는 일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일이 되느라고 그런지 그 밭은 엘리멜렉 집안인 보아즈 것이었습니다.⁴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야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며 거두는 일꾼들에게 맘짓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훼께 누릴몹⁹⁾

6) ‘가까운 피붙이’라는 뜻을 지닌 우리말입니다.

7) ‘부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

8) ‘인사’를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을 받으십시오” 하고 일꾼들이 받았습니다. ⁵보아즈는 거둬들이는 시키는 한 마름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아나이는 어느 집 사람인가?” ⁶마름이 받았습니다. “저 젊은 아나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온 모압 아나입니다. ⁷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⁸보아즈가 룯에게 일렀습니다. “악아, 내 말이 들리느냐?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우러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⁹거두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워라. 머슴들이 네게 지다위하지¹⁰ 못하도록 내 일러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¹⁰그러자 룯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좋게 보아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십니까? 저는 한낱 다른 나라 아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¹¹보아즈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 들었다. 네가 지아버가 죽은 뒤에도 뜻머니를 마음 다해 모셨고, 옛살나비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낯선 이 곳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¹²네가 그렇게도 가혹하게 지내는데, 어찌 아뢰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하느님 아뢰 품 속으로 몸 두겠다 찾아왔으니, 너를 넉넉하게 품어 주실 게다.” ¹³룰은 “부디 저를 어여삐 보아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 집 여느 아나아 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보아 주시니 힘이 됩니다”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¹⁴끼니 때가 되어 보아즈가 룯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 밥을 좀 먹도록 하려므나.” 그래서 룯은 거둬들이¹¹들 옆에 앉았습니

9) ‘축복’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축복’ 또는 ‘복’이라는 말도 이 말 말고도 ‘살뫼’이라고 옮겨야 할 곳도 있었습니다.

10) ‘지다위하다’는 ‘성가시게 굴다’ 또는 ‘집적거리다’라는 우리말입니다.

11) ‘수확하는 일꾼’을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

다. 보아즈는 룯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은만큼 밀어 주었습니다. ¹⁵룯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즈가 머슴들에게 일렀습니다. “저 아나이가 보릿단 사이로 돌아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¹⁶숫제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줍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¹⁷룯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모아보니 보리가 한 예바나 되었습니다. ¹⁸룯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뜻어머니께 보이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겨 온 먹거리도 꺼내 드렸습니다. ¹⁹뜻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네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 주신 그 분이 누릴몹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받겠느냐?” 룯이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 ¹²항것은 보아즈래요” 하며 제가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지를 뜻어머니에게 밝히자 ²⁰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해주시는구나. 그 분이 야훼께 누릴몹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그 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푸네기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²¹룯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즈가 거둬이 끝날 때까지 그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했다고 하니 ²²나오미는 룯에게 “애야, 네가 그 집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 됐다. 다른 밭에 갔다가 사내들에게 부끄러운 꼴이 될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²³이리하여 룯은 보리와 밀을 다 거둘 때까지 보아즈 집안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워 뜻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셋째가름

¹시어머니 나오미가 룯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젠 너도 네 삶을 누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

12) ‘주인’이라는 우리말입니다. 이것은 높녘(북녘)에서 쓰는 말인데, 다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마. 그렇지 않느냐? ²너는 보아즈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으나 그 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푸네기이다. 바로 오늘 밤 그 분은 거둬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³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갖춰 입고 그 집 거둬마당에 내려가라. 그 분이 저녁을 먹기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⁴그 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두었다가 살며시 가서 그 발치계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은 그 분이 일러 줄 것이다.” ⁵“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룿은 이렇게 말하고

⁶거둬마당으로 내려가 뜻머니가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⁷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룿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계를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⁸밤이 깊어 추위를 느껴 몸을 웅크리던 보아즈는 발치계에 웬 아나이가 누운 것을 알고 ⁹“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룿입니다.” 하고 룿이 받았습니다. “어르신네께서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제 몸을 덮어 주십시오.” ¹⁰“애야, 야훼께 누릴몹을 받아라” 하고 보아즈가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지한데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까지 어른을 받드니 이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¹¹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바라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네가 굳센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을 안에 있는 내 겨레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¹²너를 맡아 줄 몹이 내게 있기는 하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가까운 푸네기가 또 있다. ¹³이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 하제¹³⁾ 아침에 그가 너를 맡겠다고 나서면, 좋다, 그가 너를 맡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가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맡아주마. 날이 샅 때까지 여기서 쉬어라.”

¹⁴이리하여 룿은 날이 새기까지 그 발치계에 누워 있다가, 아나이가 거둬마당에 왔더라고 말이 나서는 안된다는 보아즈 말

13) ‘내일’이라는 우리말입니다.

을 따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¹⁵보아즈는 룿이 쓰고 있는 옷을 벌리라고 하고는 룿이 옷을 벌리자 보리 여섯 뒷박을 퍼 담아 주었습니다. 룿이 마을로 돌아와 ¹⁶뜻어머니에게로 오자 그가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룿은 그 사람이 제게 해 준 일을 다 말했습니다. ¹⁷“어머님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된다면서 보리를 여섯 뒷박이나 주셨습니다.” ¹⁸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 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매조지 하지 않고는 못견딜 것이다”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넷째가름

¹보아즈가 잣드난이께로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했던 푸네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하며 보아즈가 그를 부르자, 그가 발길을 돌려 와서 앉았습니다. ²보아즈는 마을 어른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불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³보아즈가 푸네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엘리멜렉에게 땅이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와 그 땅을 팔려고 내놓았소. ⁴이 일을 이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에 하는 말이오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겨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그 땅을 다시 사서 가질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구려. 그럴 마음이 없으면 뜻을 말하십시오. 내가 알아야겠소. 그것을 다시 사서 가질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 다음은 내가 살 수 있소.” “내가 사서 가지겠습니다.” 그가 뜻을 밝히자 ⁵보아즈가 다짐하였습니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넘겨받는 날 그대는 홀어미 룿도 떠맡아야 하오. 그래서 가신 분 이름을 이어 그 것을 받을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하오.” ⁶그러자 그 푸네기는 “그렇다가는 나만 밀지겠군. 그럴 수는 없소” 하면서 그 땅을 다시 사는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만 그대나 사서 가지시구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소.”

7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깃을 다시 사서 가지는 일을 남에게 넘겨줄 뜻으로 신 한 짝을 벗어서 맞선 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밝힘거리¹⁴)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⁸그 푸네기도 “그대가 차지하시오”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즈에게 주었습니다. ⁹그러자 보아즈는 어른들과 온 겨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길론과 마흘론에게 팔렸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밝힘꾼¹⁵)입니다. ¹⁰또 나는 마흘론 아내 모압 아나이 룻까지도 깃¹⁶)과 함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신 이 이름을 이어 그 깃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가신 이 이름이 그 집안과 함께 남아 이 고을 잣드난이¹⁷)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을 밝혀줄 사람들입니다.” ¹¹잣드난이에게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밝힘꾼이오” 하고 받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그대 집에 들어오는 이 아나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아나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길 빕니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힘을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휘날리기를 빌며, ¹²또한 야훼께서 이 짧은 아나이 몸에서 씨앗을 일으키셔서 그대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안같이 되기를 빌고 또 빕니다.”

¹³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 자리에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심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¹⁴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맘짓을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집안이 내림을 이여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께 다누림¹⁸)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기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기를 빕니다. ¹⁵이 집안을 이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아들 일곱 부

14)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

15) ‘증인’을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

16) ‘유산’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입니다.

17) ‘城’을 우리말로로는 ‘잣’이라고 합니다. ‘드난이’는 ‘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8) ‘영광’을 우리말로 이렇게 나타내보았습니다.

렵잖은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이 집에 살 맛을 되돌려 주고 늙었을 때 받들어 줄 것입니다.”¹⁶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제 사리로 길렀습니다. ¹⁷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할아버지요 이새 아버지였습니다.

¹⁸베레스 내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¹⁹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²⁰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²¹살몬은 보아즈를, 보아즈는 오벳을, ²²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